

쿠팡 3370만명 고객정보 털렸다… 소비자 2차 피해 우려

6월부터 해외서버 통해 유출
과기부, 민관조사… 경찰 수사
KISA 피해보상 피싱 등 경고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시장 1위 업체인 쿠팡에서 3000만건이 넘는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민간과 합동조사단을 꾸려 사고 원인 분석에 나섰고, 경찰은 이번 사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고객 계정 약 3370만개가 무단으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지했다.

쿠팡은 노출된 정보가 고객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로 제한됐고 결제 정보와 신용카드 번호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해외 서버를 통해 지난 6월 24일부터 무단으로 개인정보에 접근한 것으로 추정된다.

쿠팡은 이 사고를 지난 18일 인지하고 지난 20일과 전날 각각 관련 내용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현재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며,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배경은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 회사까지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유출이 발생하게 돼 송구하다”고 밝혔다. 배 장관은 이어 “정부는 지난 19일 쿠팡으로부터 침해 사고 신고를 받았고, 지난 20일 개인정보유출을 신고 받은 이후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공격자가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해 정상적 로그인 없이 3000만개 이상의 고객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발송지 전화번호 및 주소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5일 쿠팡 측으로부터 이번 사태에 대한 고소장을 받아, 개인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쿠팡에서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2차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날 관련 기사에는 ‘고객 피해는 누가 책임지나’, ‘다 털려서 너무나 두렵다’, ‘유출한 게 어떤 보상을 해야 한다’는 등의 댓글이 잇따랐다. 특히 쿠팡이 피해 규모를 9일 만에 약 7500배로 조정한 것을 두고, 추가 피해가 더 나오는 게 아니냐고 보는 시각도 있다. 또 지난 6월부터 정보 탈취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만큼, 정보 유출이 수개월에 걸쳐 이뤄졌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쿠팡은 지난 20일에는 정보 유출 피해 고객 계정이 4500여개라고 발표했으나, 전날 3370만개라고 다시 공지했다. 쿠팡의 이번 고객 정보 유출 규모는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 개인정보보호위로부터 역대 최대 과징금(1348억원) 처분을 받은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약 2324만명)를 뛰어넘는 규모다.

이와 관련,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보안 공지를 통해 ““피해보상”, ‘피해 사실 조회’, ‘환불’ 등 키워드를 활용한 피해기업 사칭 스미싱 유로 및 피해보상 안내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등 피싱 시도가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긴급 앱 업데이트’, ‘피해보상 신청’, ‘환불’ 등 안내 문자에 악성 인터넷주소(URL)를 삽입해 피싱 사이트나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유형이 대표적이다.

KISA는 발신자가 불분명한 메시지의 주소는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하고, 의심되는 사이트는 정식 주소와 일치하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정보 유출 사고를 비롯해 국내에서 쿠팡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택배 기사·물류센터 노동 문제와 쿠팡풀필먼트 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 임점 수수료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지난 달 국정감사에서는 박대준 대표 등 쿠팡 경영진이 5개 상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송대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쿠팡 개인정보 유출 주요 사례 및 일지

쿠팡, 2021년 3월과 2024년 3월 ISMS-P* 인증 취득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1

2020년 8월 ~2021년 11월

쿠팡이츠 배달원 개인정보 유출

배달원 실명, 휴대전화번호 등 음식점에 전달

유출 규모 13.5만명

2

2021년 10월

앱 업데이트 간 테스트 소홀로 개인정보 유출

14건

3

2023년 12월

쿠팡 판매자 전용 시스템 '핑' 유출

주문자·수취인 전화번호·주소 판매자에게 노출

2.2만명

4

2025년 6월 ~11월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발생

고객이름·이메일·전화번호·주소 일부 주문정보 노출

3,370만명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 주요 일지

2025년 6월 24일 해외 서버를 통한 무단 개인정보 접근 시작 추정 (중국 국적의 쿠팡 전 직원 소행으로 추정, 퇴사 후 출국한 것으로 파악)

11월 18일

쿠팡, 유출 사실 최초 인지

11월 20일

쿠팡, 피해 사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 및 정보 유출 피해 고객 계정 4,500여 개로 발표

11월 25일

쿠팡, 경찰에 고소장 제출 (피고소인 '성명불상자로 기재')

11월 29일

쿠팡, 추가 피해 사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 및 정보 유출 피해 고객 계정 3,370만 개로 정정해 공지

7,500배 조정

정부,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국내 유실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100억원 이상 기업은 인증 의무 대상으로, 쿠팡은 당시 로켓배송 등 포함한 쿠팡 서비스 전체 인증

연방뉴스

자료: 쿠팡,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회민중당 한창민 의원

현대차·기아는 최근 경기 안성시 제5일반산업단지에서 ‘미래 모빌리티 배터리 안성 캠퍼스 상량식’을 열고 본격적인 배터리 연구개발 인프라 조성에 나섰다.

현대차·기아, ‘미래 모빌리티 배터리 캠퍼스’ 구축

안성 제5산단에 1조2000억 투자…내년 준공 목표
배터리 성능·안전 검증 “글로벌 전동화 시장 선도”

현대자동차·기아가 차세대 전동화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배터리 개발 거점을 구축한다.

현대차·기아는 최근 경기 안성시 제5일반산업단지에서 ‘미래 모빌리티 배터리 안성 캠퍼스 상량식’을 열고 본격적인 배터리 연구개발 인프라 조성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는 양희원 현대차·기아 R&D본부장(사장), 김동욱 전라기획실장(부사장)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윤종근 국회의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과 지역

상생의 의지를 다졌다.

‘미래 모빌리티 배터리 안성 캠퍼스’는 부지 약 19만7000㎡, 연면적 약 11만 1000㎡ 규모로 조성된다. 현대차·기아는 총 1조2000억원을 투입해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캠퍼스는 차량 요구 조건을 정밀 반영한 고난도 실증 환경에서 배터리 설계와 공정 기술을 종합 검증하는, 그룹 최초의 대규모 배터리 특화 연구개발 거점이다.

현대차·기아는 안성 캠퍼스에 전국-조립-활성화 등 배터리 셀 제조 전 공정을 수

행할 수 있는 첨단 설비를 갖추고, 혁신 기술의 적용 가능성과 품질·안전성을 하나의 테스트베드에서 반복 검증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셀 설계뿐 아니라 공정 기술, 차량 시스템과 연계된 통합 제어 기술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소재-셀-모듈-팩-차량으로 이어지는 전 주기 관점의 배터리 성능·안전성 검증 체계를 내재화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차·기아는 배터리 캠퍼스에서 전 기차, EREV 등 차세대 전동화 차량에 탑재될 고성능 리튬이온 배터리 셀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향후 시장과 기술 트렌드에 맞춰 다양한 형태와 소재로 연구개발 범위를 확대해 예정이다.

이번 배터리 캠퍼스 구축은 울산 수소

연료전지 공장과 화성 기아 PBV 전용 공장에 이어 추진되는 세 번째 대규모 국내 투자 프로젝트로, 현대차그룹이 발표한 125조2000억원 규모 국내 투자 전략을 전동화·배터리 R&D 분야에서 구체화한 사례다. 배터리 캠퍼스의 성공적 구축을 위한 현대차·기아와 경기도, 안성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윤종근 국회의원 간의 업무협약(MOU)도 체결됐다.

양희원 현대차·기아 R&D본부장은 “배터리 캠퍼스는 국내 배터리 생태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산업 간 협업과 기술 고도화를 촉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며 “기업 경쟁력의 차원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전동화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

전남 ‘새청무 쌀’ GS25 편의점에 납품 도, GS리테일과 2만t 공급 협약…도시락·김밥 판매

전남 대표 쌀 품종인 ‘새청무 쌀’로 만든 김밥과 도시락을 전국 GS25 편의점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됐다.

전남도는 최근 도청에서 GS리테일과 함께 전남 대표 쌀 품종 새청무 쌀 2만t(600억원 상당) 공급 업무협약을 했다.

이는 전남도와 GS리테일 간 협력 중 역대 최대 규모 공급 계약이다. 전남 쌀 소비 확대와 농가소득 안정에 큰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허서홍 GS리테일 대표이사, 새청무 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참여한 김용경 장흥 정남진통합RPC의 대표, 서만원 순천농협 상임이사, 이효상 해남 화산농협 본부장, 이재운 ㈜농협유통 양곡부 단장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새청무 쌀을 활용한 신선식품 개발·출시·판매와 공동 마케팅 추진, 새청무 쌀 소비 촉진과 홍보 등 행정적 지원 강화, 새청무 원료곡의 안정적 공급이다.

GS리테일은 활기와 윤기가 좋고 밥맛이 우수한 새청무 쌀을 활용해 전국 GS25 편의점을 통해 도시락, 삼각김밥, 한줄김밥 등 신선식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지역 농산물을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신선식품 개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새청무는 9년의 연구 끝에 개발된 품종으로, 현재 전국 점유율 1위, 17%에 달하는 대한민국 대표 품종”이라며 “앞으로 GS편의점에서 판매되는 도시락, 삼각김밥에서 활용하게 돼 전남 쌀의 판로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관계 기관과 지속해서 협력, 전남 쌀의 우수성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수도권 소비자 대상 영상 홍보 등 다양한 소비 활성화 활동을 집중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8월 CJ제일제당에 새청무 원료곡 1만t을 공급해 ‘햇반’ 제품으로 출시·판매토록 했고, 전국 140여 암살김밥 매장에도 새청무 쌀을 지속 공급하는 등 판로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최근 도청 접견실에서 GS리테일 허서홍 대표이사와 전남 대표 쌀 품종 ‘새청무’ 쌀 활용 FF상품 출시와 안정적인 2만t 원료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환율, 외국인 주식 매도에 ‘1470.6원’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에 원·달러 환율이 1470선까지 올랐다.

지난 2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낮)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전날보다 5.7원 오른 1470.6원으로 집계됐다.

환율은 2.4원 내린 1462.5원으로 출발한 뒤 오전 중 상승세로 전환했다. 장 마감 직전 1471.0원까지 뛰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2조370억원 순매수를 기록했다. 코스피는 1.51% 내린 3,926.59로 마감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추수감사절로 휴장했다.

마국의 12월 달러 인하 기대가 유효한 가운데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100선 아래 머무르고 있다. 현재 전날보다 0.07% 오른 99.627 수준이다.

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40.49원으로, 오후 3시30분 기준가인 938.29원보다 2.2원 올랐다.

엔·달러 환율은 0.04% 오른 156.36%이다.

이산하 기자 goback@

콘진원, ‘코리아 스포트라이트 @스페인’ 성료
청하·빌리·손·누에라·빅오션 등 뮤지션 무대 펼쳐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최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코리아 스포트라이트 @스페인’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30일 밝혔다.

코리아 스포트라이트는 국내 대중음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콘진원이 추진하는 대표 프로그램이다.

국내 유망 뮤지션의 해외 공연 기회와 현지 음악산업 관계자와의 교류를 지원한다. 올해는 태국을 시작으로 호주·영국·독일·일본·멕시코·베트남 등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됐으며, 스페인을 마지막으로 K-팝의 국제 협력 기반을 넓혀 가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청하, 빌리, 누에라, 빅오션, 손 등 5팀이 참가한 공식 쇼케이스가 성황리에 진행됐다.

참가 뮤지션 모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의 공연은 처음으로, 현지 관객과 의미 있는 첫 만남을 가졌다.

특히 입장권 예매가 시작된 지 10분도 지나지 않아 전석 매진돼 K-팝에 대한 현지인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쇼케이스에 앞서 참가 뮤지션 누에라는 바르셀로나 개선문(Arc de Triomf) 광장에서 자체 홍보 프로그램을 진행해 수천 명의 현지 팬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빅오션은 그래미상을 수상한 프로듀서이자 디제이(DJ) 프랭키 빅스(Frankie Biggs)와 송라이팅 캠퍼스에 참여해 곡 작업과 협업 콘텐츠를 촬영하는 의미 깊은 만남을 가졌다.

나주=조현진 기자 pose007@gwangnam.co.kr

aT, AI 전환으로 유통 효율·국민 편익 강화
농산물 수급부터 K-푸드 수출까지…AX 추진 전략 발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AI를 활용한 업무 효율화와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한 4대 전략 및 10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이번 AI 전환(AX) 추진 4대 전략은 △공사 AI 활용 생태계 조성 △스마트 수급 관리로 물가안정 기여 △유통효율화로 농가에서 국민까지 편의 제공 △AI활용 K-FOOD 영도 확장 등이다. 공사 대내외에서 AI를 활용한 효율성 증대로 농어민 성장과 국민 행복을 연결하는 것을 비전으로 한다.

특히 농산물 수급관리 분야에서는 생산·유통·소비 전주기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비축 농산물에도 AI 기반 데이터 분석을 통한 도입·방출 의사 결정을 지원해 물가 안정에 힘을

계속한다.

농산물의 효율적 유통을 목표로 운영 중인 온라인도매시장에서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 맞춤형 AI 매칭 서비스를 제공해 온라인 도매 유통률을 향상시킨다.

공사는 일반 국민이 손쉽게 농산물 물가정보를 알 수 있게 ‘AI 기반 물가정보 서비스 앱’도 개발해 농가와 일반 국민이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수출 부문에서는 기업이 보다 편리하게 글로벌 시장정보를 얻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 지원사업에 쉽고 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AI 서비스를 지원해 전세계로의 K-푸드 영도 확장에 기여할 계획이다.

나주=조현진 기자 pose007@gwangnam.co.kr